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 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 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 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籩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대중회 2025년 신년교례회 개최



2025년 1월 8일 오후 5시, 대중회는 명동소재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90여 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교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되었는데, 1부에서는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주요내빈 소개, 어르신께 세뱃돈 전달, 상호 인사, 대중회 회장 신년 인사, 내빈 축사에 이어 축하 떡 케이크 자르기 및 건배 제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만찬을 즐기면서 같은 자리에 앉은 종인들이 덕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은 날씨가 추워서 당초 초대했던 130여 명의 참석 예정자 중 9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경제 전 위원장, 달곤 전 국회의원, 대중회 재진 전 도유사, 헌법재판소 종석 전 소장, 종배 현 국회의원, 건강사회운동본부 수구 이사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경희 이사장, 퍼시픽호텔 종철 이사장, 공간건축 이상림 회장을 비롯한

종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는 세뱃돈을 전달하였는데, 재진 대중회 전 도유사, 영래 광원군과종회 전 도유사, 용호 대중회 부회장, 원재 대중회 전 상임 부도유사, 경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종철 퍼시픽호텔 회장에게 대중회 주영 회장이 직접 자리로 찾아가 인사하고 세뱃돈을 전달하였다.

대중회 주영회장은 인사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청목(靑木)의 기운이 더해져, 더욱 조화로운 에너지가 넘치고, 지혜로운 내면에 강한 에너지를 품어,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서, 꿈을 이루는 기쁨과 성공의 감동을 만끽하시길 기원하며, 또한 우리 종인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끝없이 이해하고 인내하며, 문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2024년 대중회는 자랑스러운 廣州李의 가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百代之親의 정

을 나누며, 화합하는 종회와 종인으로 유지를 받들어 왔으며, 2025년에는 일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각 지파의 현안 사항과, 단체 및 종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여, 종회의 발전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첫째, 역사권 활성화에 따라 삼성동 수도 빌딩의 재건축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한글세대의 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발간 서적 및 제례 관련 용어 등의 한글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셋째, 2027년 둔촌선생 탄신 700주년 축하 행사와 광주이씨의 날 행사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며, 넷째,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모든 종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대중회의 소식을 듣고, 선대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도록, 문화홍보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대중회 재진 전 도유사, 종배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제 전 위원장, 광문회 달곤 회장, 헌법재판소 종석 전 소장의 축사와 덕담이 있었으며, 떡 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경제 전 위원장의 건배사에 모든 종인들은 새해의 발전을 염원하는 건배로 열기를 북돋웠다.



대중회 단신

■ 대중회 임원진 성남문화원 방문



성남문화원 방문 문화업무 관련 간담회



성남문화원 성남시장 표창패 수상후

2025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중회 상근 임원들은 성남문화원을 방문하여 2025년도 사업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다. 먼저 “성남시 국가유산보존 유공기관” 표창패를 문화원장으로 부터 전달받고, 2025년도 제 10회 둔촌문화제 개최, 성남지역 선조들의 묘역관리와 홍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후 오후의 신년교례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 선대묘역 관리 주체 변경

그동안 하남과 성남 등 서울 근교 선대 유적지 관리는 후손들로 하여금 선대에 대한 선·현양의 봉사 정신으로 외부인이 아닌 후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주체를 정하여 재정적 지원의 차원에서, 하남 시조비묘역은 경기남부청장년회, 성남 둔촌선생 묘역은 재경화수회 산악회, 청백리묘역은 성남 화수회, 구암정 및 둔굴과 봉서정은 서울청장년회에서 맡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성남화수회 회원들이 연로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득이 조정하여 청백리묘역과 구암정 및 둔굴은 서울 청장년회가 맡고, 봉서정은 좌통례공파종회 산하 쌍호당종회에서 맡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후손으로서 선대의 유적을 잘 관리하여 주시길 바란다.

■ 청주한씨 장헌공파종친회 대중회 방문

2025. 1. 14 오후 2시 청주한씨 장헌공파종친회 한만길 회장, 한기선 부회장, 한권우 총무이사 등 7인의 종친회원들이 대중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청주한씨 종인들은 모범적인 종친회로 소문난 광주이씨의 종회 운영 방법, 둔촌선생이 성남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역할, 둔촌 선생의 선현양 사업, 기타 대중회의 문화사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었다. 장헌공파 종친회는 우리와 소재가 같은 성남시

에 종조의 묘소가 있고, 사무실을 두고 있는 관계로 종조인 장헌공 한효순의 선·현양은 물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위해 우리 광주이씨 대중회의 운영 방법을 듣고 싶어 방문했다고 전했다.

○ 장헌공 한효순(韓孝純, 1543~1621)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月灘)이다.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상경(韓尙敬)의 후손이다, 주요 관직으로 우찬성, 판돈령부사, 이조판서, 좌의정을 지냈다. 한효순은 통제사 이순신 장군의 요청으로 한산도에서 시행된 무과(武科) 시험 때 선조의 명을 받아 인재를 선발하였고, 군량미와 병선(兵船) 등 전투에 필요한 군수물자 조달에도 힘써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水軍)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공적을 세웠다. 또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기에 영해부사로서 왜군을 격파하는 위업을 떨쳤는데, 피난을 가던 선조 임금이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라고 평가하였다. 왜란 이후에는 강성해지는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신기비결(神器秘訣)』과 『진설(陣說)』 등 각종 화기와 무기의 제조 및 사용법과 진법을 해설한 병법서를 저술하여, 국가안보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조선시대 유일무이한 화기 교범서인 『신기비결』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21년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였다. 묘소는 분당구 서현동에 있다.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종회 소식

■ 충희공종회·광릉부원군파종회 합동 신년교례회 개최

충희공종회(회장 경래)와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5년 1월 13일(월) 공동으로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을 비롯해서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대중회 용두 상임부회장, 그리고 10개 지파 종회장과 집행부, 대중회 결재 전 총무이사, 광릉부원군 파사공종회 은재 회장, 경기도 의회 백래前 의원, 텔런트 종구 현종 등 60여 명의 종친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식전 광릉부원군 부조묘(不桃廟)에 주과포를 진설하고, 참석자 모두 파조님께 신년 제례를 올렸다. 이



충희공·광릉부원군파종회 합동 교례회

후 경래 회장의 개회 선언, 국민의례, 상호 배례, 내빈 소개, 문수 총무로부터 광릉부원군 선조님의 유훈인 석복겸공(惜福謙恭)에 대한 설명, 경래 회장의 신년 인사, 봉수 회장의 신년 인사,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의 신년사, 종길 화수회장 신년사, 텔런트 종구 현종 신년사, 대중회 용두 상임 부회장 축사, 그리고 지파 종회장 순으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리셉션에는 각 종회의 안녕과 무탈을 기

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이 있었다. 이후 자리를 식당(마포 갈비집)으로 옮겨서, 덕담과 함께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래 회장, 봉수 회장, 재석 회장 순으로 을사년 한해 안녕을 기원하는 건배 삼창이 있었다.

－ 석복 겸공(惜福謙恭) 이란－

광릉부원군(諱 克培)께서 해가 바뀌면 덕담으로 후손에게 이르기기를--

「너희들은 자만(自慢)을 멀리하고 석복겸공 하라. 모든 사물은 성(盛)하면 반듯이 쇠(衰)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니 매사에 공손하고 겸손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생활하여 복(福)을 오래도록 누려라. 평소 절약하고 겸손함을 더 함이 복을 아끼고 수명을 늘이는 방법이다. 비우고 내려놓아 복을 아껴라」 하시면서 유훈을 남기셨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記

광천부원군파종회 소식

■ 광천부원군파종회 신년교례회 개최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희망찬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날씨는 춥고 차가운 날이었지만, 원근 각지에서 모두 참석하여 종친 간의 정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종무 총무의 진행으로



광천부원군파종회 신년교례회

국민의례 - 떡 케이크 커팅 - 공로상 시상 - 성호 회장 인사 - 영재 고문 축사가 이어졌고, 6개 지역

종회 종회장의 신년 계획과 덕담이 차례대로 이어졌다. 이날 시상에서 공로상 수상에는 임실 종회 평래 종회장, 대종회 前 종선 감사(충북 종회) 2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들은 앞으로 종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고, 이어지는 만찬에서는 성호 회장의 종회 발전과 종친 여러분들의 건강을 비는 건배사를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만찬을 즐기며 모두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었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 종무記

“조선의 장한 어머니 平山申氏의 삶과 생애” 학술발표회 개최



평산신씨 학술발표회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1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3층 아트홀에서 「조선의 장한 어머니 평산신씨의 삶과 생애」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광주이씨정재공연합종회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주이씨정재공종회가 주관하며, 승덕재종회, 동고종회, 양호당종회, 현감공종회, 천미공종회, 경기도불천위문중협의회, 성균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대종회 주병 문화이사의 진행으로 개회식, 국민의례, 사업회 경수 회장 인사, 대종회 주영 회장 축사, 경기도불천위문중협의 이용규 회장 축사에 이어 1시 30분부터 「1부. 조선의 장한 어머니 평산신씨의 삶과 생애」 「2부. 평산신씨 자손의 학문과 생애」라는 주제로 이은식 한국인물사 연구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 강사 이은식 원장은 문학 및 철학 박사이며, 연합대일신문 논설위원, 성균관 부관장, 서울문화사학회 이사 등을 지내고, 현재 한국인물사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모정의 한국사」 등 많은 저서를 출판한 학자이다.

이날 발표회를 참관하기 위해 외빈으로 경기도 불천위문중협의회 이용규 회장·수석부회장 김희덕·부회장 한동익·감사 강홍수·총무이사 정찬영·이사 박만춘·황재하·사무처장 이해주, 경기문화재단 윤여빈 본부장, 성균관 서울시 본부 부관장 이용주, 성균관 상임이사 이상만, 성균관 유도회 서울시본부 원임회장 원재식, 평산신씨 제정공파종회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고, 내빈으로는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좌통례공파택수 회장,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문경공파종회 원재 전 회장, 광원군파종회 용



평산신씨 학술발표회 기념촬영

철 전 회장 등 약 17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모두 채우고 일부는 뒤에서 서서 강의를 듣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 평산신씨의 부군(府君) 정재공(貞齋公) 홍문관 부수찬 휘 수정(諱 守貞)

공의 자는 간중(幹仲)이고 휘는 수정(守貞)이며, 호는 정재(貞齋) 또는 소한재(素寒齋)이니, 성종 정유(丁酉 1477)년 5월 6일 광양군(廣陽君 諱世左)의 넷째아들로 탄생하였다.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선생에게서 배워 재기(才器)와 학술(學術)로 사우(師友)간에 추앙하여 존경함을 받았으며,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선생과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선생과는 가장 젊은 벗으로서 제일 가깝게 의리로 사귀었다. 연산 신유(燕山 辛酉 1501)년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장원하고, 같은 해 23인 중 장원(壯元)으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승정원 주서(承政院主書), 봉상시 주부(奉嘗寺主簿)를 거쳐,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뽑혀 동학교수(東學教授)와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연산 무오(戊午 1489)년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온 집안이 귀양 가는 화(禍)를 당하였으며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에 종조부(從祖父) 좌의정공(左議政公 諱克均)과 부친이신 광양군(廣陽君 諱世佐) 형제가 참형을 당하고, 1504년 5월 13일 공의 4형제가 다 함께 참형(斬刑)을 당하니 향년 28세이다. 당시 공의 큰 아들 윤경(潤慶 崇德齋公)은 7살이고, 둘째 아들 준경(浚慶 東臯相公)은 6살로 충북 괴산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설원(雪冤)되어, 도승지겸 홍문관 부제학(都承旨兼 弘文館副提學)에 증직(贈職)되고, 명종

조(明宗朝)에 이르러 둘째 아들 동고상공(東臯相公) 휘 준경(浚慶)의 현달(顯達)로, 영의정겸 세자사(領議政兼 世子師)의 증직(贈職)을 더 하였다.

배위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상서원 판관(常瑞院判官) 승연(諱 承演)의 따님이며, 좌의정 자수(左議政自守)의 증손녀인데, 아름답고 뛰어난 덕(德)이 있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배출시킨 모범적인 어머니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항상 이르기를 「과부의 자식은 남이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으니, 반드시 학문에 열 겹절을 더 부지런히 하여서 너의 집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 경자(庚子 1480)년에 탄생하여, 중종 갑신(甲申 1524)년 1월 25일 서거(逝去)하시니, 향년 45세로 공과 합장(合葬)하였으며, 묘는 양근 용진면 목율동 좌향 경좌(龍津面木栗洞坐向庚坐 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78-2)이다. 슬하에 2남으로 장자(長子)는 자가 중길(重吉) 휘는 윤경(潤慶)이며 호는 승덕재(崇德齋)이다. 차자(次子)는 자가 원길(原吉), 휘는 준경(浚慶)이며, 호는 동고(東臯)이다.

○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의 행록(行錄)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는 평산의 대성(大姓)으로, 고려 태사 승겸(崇謙)의 후손이다.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 제정공(齊靖公) 효창(孝昌)의 현손이요, 증좌의정 동지중추부사 자수(自守)의 증손이다. 상서원(尙瑞院) 판관(判官) 승연(承演)과 홍주이씨(洪州李氏)의 따님으로 1480년(성종 11) 태어났다. 천품(天稟)이 아름답고 은정(恩情)이 많아,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가 독실하니, 판관공이 심히 사랑하여 끼고 가르치기를 독실하게 하므로, 여공(女工)을 익힌 외에도 학문에 조예가 있었고, 고사(古史)를 널리 보아 의리에 투철하였으며, 의젓하여 여사(女士)의 풍도(風度)가 있었다.

1497년(연산군 3년) 廣州이씨 수정(諱 守貞)에게 출가하여서는, 시부모(媼父母) 섬기기를 효성으로 하고, 남편을 받들며 어김이 없었으며, 동서(同壻) 간에는 존경으로써 하고, 비복(婢僕)을 어거(馭車)함에는 인정으로써 하니, 온 집안이 웅목하

여 화기(和氣)를 잃지 않았다. 1498년(연산군 4)과 1499년(연산군 5) 해를 띄워 연속으로 아들을 얻고, 부군(夫君)께서는 1501년(연산군 7) 한 해에 대소과(大小科)를 다 따내어, 안팎으로 기뻐하여 재미가 한창 진진(津津)하였는데, 하늘이 돌보지 않아, 1504년(연산군 10) 25세(부군은 28세)에 느닷없이 백륙(百六) 액운이 닥치는 기회(厄運)를 만나, 온 집안이 폭삭 망하고 부녀자와 어린이들만 남았으나, 아이들은 먼 시골로 귀양을 보내고, 그것도 따라갔다가 유모(乳母)에게 맡기고 헤어져야만 했다.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는 모두 적몰(籍沒)되고, 살던 집은 못이 패었으며, 만사(萬事) 판탕(板蕩)이 되고 앞뒤로 발치(跋扈)하여, 한 몸 발가벗고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 이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물골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문을 유지하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조상의 영광을 계승(繼述)하게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오직 부인 한 몸에 있었으니, 이럴때에 붕성(崩城)의 슬픔이나, 주곡(晝哭)의 서러움 따위는, 부인의 처지에서는 모두 값싼 꾸밈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모든 고통을 참고 몸을 중히 추슬러, 친정(親庭)에 의탁하여 부지런히 가사(家事)도 돕고 공부도 더 하면서, 세상이 청정(淸靜)해 지기를 기다렸는데, 1506년(연산군 12) 천도(天道)가 순환하여 일월(日月)이 다시 밝아, 두 고아(孤兒)가 비로소 서울로 돌아오니, 외가(外家)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길러지게 되었다.

부친(父親) 판관공(判官公)이 항상 두 외손(外孫)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부인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들은 봉추(鳳雛) 봉황의 새끼라는 뜻으로, 지락이 뛰어난 젊은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와 기자(麒子 성인(聖人)이 이 세상(世上)에 나면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想像)의 동물(動物)인麒麟을 말하며, 슬기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난 젊은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니 조심해서 보호하라」 하였다. 부인께서는 친히 「효경(孝經)」·「대학(大學)」 등을 가르쳤는데 잊었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대목이 있으면 곧장 매로 다스렸으나, 두 아들은 공경스러운 태도로 매를 달게 맞고, 한 번도 거역하거나 언짢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부인께서는 항상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 경계(警戒)함)하고 면려(勉勵 스스로 노력하거나 애씀)하여 이르기를 「고례(古例)에 과부(寡婦)의 자식은 남다른 데가 있지 않으면 사귀지 말라 하였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잃고 나와 살고 있으므로, 한가지 행실이라도 구겨진 데가 있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니, 학업

에 근면하여 집안의 명성(名聲)을 실추(失墜)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두 아들은 비록 어렸지만 공손하게 그 훈계를 받들고 도리가 아닌 것은 하지 않았고, 예의(禮儀)에 어긋나는 일은 눈과 마음에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마을에 나들어도 난잡하고 예에 어그리진 일은 마음에도, 눈에도 접하지 않았다. 장성하여서는 종형(從兄)인 탄수(灘叟 諱 延慶) 선생에게 수업(受業)을 하고, 학문이 이루어지고 덕기(德器)가 서자, 학궁(學宮 성균관)에 유학하였다.

학업이 날로 이룩되고 지식이 더욱 넓어져, 우뚝하게 성인(成人) 같은 도량이 있었다. 세상에 나가 당세에 이름이 알려진 선비와 교유하여, 의리의 학문이 있음을 알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더욱 힘썼고, 거자(舉子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 업(業)은 일삼지 않았다. 뜻을 모아 독서하며 성현의 지취(志趣)를 힘껏 탐구해서, 전현(前賢)의 말과 행을 함양하며, 경(敬)에 거(居)하고 이(理)를 궁구하는 데에 힘써서, 세월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다. 나이가 25~6세에 이르러, 집이 가난한데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으로서, 비로소 장옥(場屋 과거보는 장소)에 뜻을 두게 되었다. 형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상상(上庠 성균관(成均館)의 생원(生員)을 달리 이르는 말)에 오르고, 모두 성취(成娶)하여 집안을 이루었다. 이쯤되면 부인께서는 어깨를 쉬일 만큼 되었는데, 초년(初年)에 놀라웠던 일(갑자사화)이 병의 근원이 되고, 중세(中歲)에 고생했던 피로가 병(病)을 키워, 두 아들이 크게 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니, 1524년(甲申 중종 19) 정월 26일이다. 생년(生年)인 1480년(庚子 성종 11)에서 따져 득년(得年)이 겨우 45세이다.

두 아드님은 병조판서 승덕재 윤경(潤慶)과 영의정 동고 준경(浚慶) 양공(兩公)이다. 따뜻한 방에서 안락하게 지내면서, 한묵(翰墨)에 손을 대고 농호(弄毫 書畫)에 취미를 가져, 곁에서 자질(子姪)들의 공부를 거들어 주다가, 다행히 자질들의 공부가 성취하여, 천고(千古)의 미명(美名)을 얻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경중(輕重)이 어떻다고 하겠는가. 부인의 탁절(卓節)과 의행(懿行)은, 신장(宸章 임금의 글)의 정포(旌褒)가 있어야 마땅하건만, 승덕재와 동고 양공의 겸근(謙謹)은, 자기 집 일을 조정(朝廷)까지 끌어 올리려 하지 않았을 것은, 응당 있음직한 일이고, 후손들도 양공(兩公)의 뜻을 이어받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인순(因循)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그 자손이 수없이 많고, 문자(文子) 문손(文孫)이 대대로 혁혁하여, 청자(靑紫)의 금어대(金魚袋 벼슬아치가 차는 玉佩)가, 거의 백수(百數)에

가까웠으니, 이는 모두 부인께서 자손을 감싸주는 규모(規模)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덕만 쌓고 영광은 누리지 않은 업보(業報)에서 유래한 것이니, 성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인의 음덕이 후세에 미쳐 과감이 연줄에 연 달리듯 이어지니, 을묘년 호남의 왜변(乙卯倭變)을 당할 때, 전승(戰勝)을 올리고 영암성(靈巖城)을 지켜, 그 이름이 중국의 병서(兵書)에 까지 나타나, 역사에 밝혀져 있는 병조판서 승덕재 윤경(崇德齋 諱 潤慶),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명종(明宗)이 후사(後嗣)없이 승하(昇遐)하였을 때, 선조(宣祖)로 하여금 대통을 잇도록 하였으며,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여 서정쇄신(庶政刷新)의 기수로서, 조선조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명상(名相)으로,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종(臨終)을 앞두고 선조에게 올린 유차(遺劄)에서, 앞으로 봉당(朋黨)의 조짐이 있으니 경계할 것을 지적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상소문(上疏文)으로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는 국조(國朝)의 현상(賢相) 청백리 충정공(忠正公) 동고 준경(東阜 諱 浚慶), 을사사화에 피화(被禍)된 중열(中悅), 도승지 양호당 덕열(德悅), 한남군(漢南君) 우참찬(右參贊) 필영(必榮), 효행과 문장으로 이름 높았던 현령 필성(必成), 통례원 상례 천미공(天微公) 필행(必行), 조선조 8文章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지제교 휴징(休徵), 병자호란에 의병을 일으킨 진사 사영(士穎)과 사헌(士獻), 문행으로 이름이 난 수암 필진(必進), 도의와 승절로 이름이 높았던 동학교수 필무(必茂), 문장으로 이름난 필선 웅징(熊徵), 청사열전에 전하는 백운거사 보만(保晩), 형조참판 시만(蓍晩), 한성판윤 정정공(靖貞公) 의만(宜晩), 청백리 공·예조판서 하원(夏源), 황해도 병마절도사 도원(道源), 공조참판 승원(承源), 호조참의 기덕(基德), 향리의 사표 병조참의 우회(友會), 한성부 좌윤 장회(長會), 선정으로 유명한 도승지 정래(正來), 사형제가 현달한 한성판윤 용익(容益)·전라도 수군절도사 용겸(容謙)·충청도 병마절도사 용복(容復)·한성좌윤 용관(容觀), 이조참판 용학(容學), 수군절도사 선재(璿載), 궁내부 특진관 승재(承載), 독립유공자 동하(東下)·강래(康來)·용식(容式) 등 수 많은 후손들이 이름을 내었으며, 외손으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등이 있다. 또한 현대에는 삼영화학그룹 종환 전 회장, 알파문고 동재 회장, 수원대학교 종욱 전 총장, 서울농대 휘재 전 학장, 방송통신위원회 경제 전 위원장, 주영 전 국회부의장, 종배 국회의원, 용호 전 국회의원, 승엽 국가대표 야구선수 등, 후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선조의 유훈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이씨 청장년연합회 대의원대회 개최

2025년 1월 5일(일) 11시, 대전효문화진흥원 별관 2층 드림홀에서 광주이씨 청장년연합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제27차 청장년연합대회 개최일 확정과 강원청장년회 발대식 관련 건이었다. 제27차 청장년연합대회는 전남 보성에서 연합회 재선 회장의 주관으로

9월 13일과 14일 1박2일에 걸쳐 청장년회원 및 가족 동반으로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강원청장년회가 발족되어 연합회에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2025년 2월 15일 발대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날은 대중회 용두 상임부회장과 연합회 전종위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광주이씨 청장년연합회 대의원대회 개최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신년교례 및 월례회의 개최



재경화수회 신년교례회 및 월례회의

2025년 1월 15일 오후 5시 30분 대종회 회의실에서 광주이씨 재경화수회(회장 충교) 신년교례를 겸한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1계 소속 영교 회원이 “광주이씨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는데 주제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력의 증강을 위해 건조되는 이지스함급 구축함 또는 항공모함 등에 “한

음 이덕형 호”를 명명토록 함으로써,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음을 홍보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선생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위상을 드높이고, 온 국민이 廣李에 대한 인지를 재조명하자는 내용이었다. 약 1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회원들은 각 소계 별로 나누어 저녁 식사와 함께 답소를 나누었다.

을사년 2025 광주이씨 대종회 신년교례회에 다녀오다



대종회 이주영 회장 인사말



대종회 신년교례회

일시 : 2025. 1. 8(수) 17 : 00

장소 : 퍼시픽 호텔 2층 대연회실

참석 : 이주영 회장, 이달곤 회장, 이경재 전 의원, 이상림 회장,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 이종배 국회의원, 이경희 이사장 외 다수의 광이 종친 등

1월 8일 오후 5시부터 퍼시픽 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2025 을사년 광주이씨 대종회 신년 교례회가 열렸다. 오후 5시 조금 넘어 회의장에 도착하니, 많은 종인들이 도착하여 좌정하였다. 헤드테이블로 안내를 받아 앉고 보니, 주영 회장의 옆자리 앉게 되었다. 주영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이다. 주요 인사들 소개가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였다. 잠시 후 세뱃돈을 받는 시간이다. 나를 포함하여 다섯 분에게 세뱃돈을 주신다. 받아 들고 보니 향렬이 높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 주는 듯싶다. 졸지에 세뱃돈을 받고 보니, 대종회 행사에 그간 소홀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부터는 대종회 행사에 기회가 되는 대로 꼭 참석 해야 하겠다.

대종회의 주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둔촌 할아버지의 효성과 시작 생활, 그리고 한글세대를 위한 족보와 둔촌 할아버지의 시집 발간 등 지난해 일들을 간추려 소개하고, 새해에 해야 할 대종회 행사를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성동 소재 수도빌딩의 재개발사업을, 강남구청과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용적률 250%를 800% 총 20여 층으로 올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본인도 이

건축사업 추진위원의 일원으로 주영 위원장을 도와 참여하고 있어 책임감이 앞선다. 이 밖에 대종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소 건물 및 자산도 잘 관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기타 대종회 여러 문화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잊지 않았다. 곧이어 종배 현역의원, 재진 도유사, 경제 방송통신위원장 및 4선 전 국회의원, 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및 현 광문회 회장의 새해 인사를 곁들인 건배 제의가 있었다. 특별히 경제 전 국회의원은 필자를 거명하면서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재직시에 자문위원으로 도왔던 일을 회상하며 필자를 과찬하여 송구스러웠다.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으신 농협자산관리회사 감사위원장 선래 전 관찰사공 도유사, 좌의정공파종회 및 한음상공종회 충교 회장, 퍼시픽호텔 종철 회장들과 명함을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 밖에 (주)공간의 상림 회장이 아들 충원과 함께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여러 종친들과 반갑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오후 6시 30분경 주영 회장과 주위 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다음 모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친애하는 연세 후학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눈다. 오늘 다른 저녁 모임은 필자가 아끼는 후학 김정태 명예교수,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박사, 건양대의 최을 교수를 ‘달개비’ 한정식 집에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소박한 모임이었다. 약속 시간을 저녁 7시로 하고 모든 연락은 이윤규 박사가 수고하였다. 조금 일찍 도착하니 이윤규 박사와 최

을 교수가 막 도착하여 반갑게 새해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안내 받아, 그간 지낸 이야기꽃을 피웠다. 잠시 후 김정태 교수가 도착하여 간만에 기쁘게 인사 나누고 환담을 계속하였다. 참으로 간만에 만나는 아끼는 후학들이다. 특히 경희대의 김정태 명예교수는 건축공학과 14회로 일 년 여 만에 만나 와인과 음식을 즐기며 시간을 함께하여 반가웠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박사는 분야가 같지만 우리 연구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고마운 후학이다. 최을 교수의 아버지 되시는 故 최억 교수님은 세브란스의 안과 의사로 일찍부터 잘 알고 지냈으며, 어머니도 안과를 전공하신 명의로 일찍부터 아내, 故 임경희 권사와 교래가 있어 온 분으로, 지금도 건강하시다. 최을 교수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다. 새해 벽두부터 후학들과 밤 9시 가까이 격이 없이 환담을 계속하다 헤어져 집으로 왔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가까운 지인들도, 친구들도, 후학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손들도 성장하여 어른이 된다. 우리는 가는 세월 아쉽다 하지 말고, 세월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연과 함께 순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노자가 말한 ‘도법자연’ 사상이 아닌가? 동우 한송의 부인, 서예가 한솔 님이 우리 연구원 10주년 때에 정성들여 써주신 ‘도법자연’ 네 글자를 매일 묵상하고 있다. 문득 옛 노래 한 구절이 떠오른다. “황성 옛터에 밤이 되니 월 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왔노라” 그렇다! 지나온 것은 지난 것이니, 흘러간 것 연연하지 말고, 지금과 내일만을 준비하라! 고 마음속에 담아 본다.

2025. 1. 10. 12 : 00

정동 연구실에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이경희 쓰다

廣州이씨 전주전북종친회 제1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전주전북종친회 정기총회

큰 눈이 온다는 대설임에도 다행히 포근한 날씨 덕분에 전주종친회 회원, 전주청장년회 회원, 남원종친회 회원, 고창종친회 회원, 고산지산공종회 회원, 임실(광천부원군)종친회 회원, 옥산종친회 회원 등 전주전북종친회 회원 100여 명이 2024년 12월 7일 11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51번지 전주 초원갈비에서 전주전북종친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본관이 광주이씨로서 둔촌 선생 후손들의 모임인 전주전북종친회 회원들은, 홍재 총무의 사회로 제1차 전주전북종친회 정기총회의 시작을 알리고, 유래 회장의 자랑스러운 광주이씨 전주전북종친회 개회를 선언하여 참석한 종인 모두가 열렬한 박수로 화답하였다. 이어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조상님께 대한 묵념에 이어, 우리 광주이씨 혈족은, 유사 이래 오직 하나를 향한 선비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숙여 다짐하고, 유래 회장이 회장으로써, 광주이씨 전주전북종친회의 영광과 발전을 향한, 소신과 각오를 다짐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내빈 소개를 하고, 문경공파 종회 경수 회장의 광주이씨 전주전북종친회 앞날의 발전과 도약을 기원한다는 축사를 하였다.

사전에 나누어준 유인물을 참고로 회의가 시작

되어, 경과보고를 하였는데 경과 내용은 2024년 1월 10일 임원회의에서 임실종친회(광천부원군파)의 참여에 따라, 부회장을 6명으로 증원하였고 대종회 지원금을 배정받으면 지난 2024년 11월 2일 영천 시조 판서공(휘 당) 참배시 차량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각 지역 분담금 10만 원의 납부를 독려하고, 5월 30일 임원 7명이 대종회를 방문하여 주영 대종회 회장과 간담회를 하였으며, 10월 8일 임원회의에서 정기총회는 12월 7일 11시 전주 초원갈비에서 하고 회비는 1만으로 결정하였고, 11월 영천 시조 판서공(휘 당) 참배(전주, 남원, 고창 버스 3대) 합을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이어 병채 감사는 보고에서 유인물 참조하여, 「2023년도 및 2024년도 세입 세출 현금출납부와 지출 증빙서 내용이 일치되었고 출납부와 예금통장도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잔액 2,063,100원 우체국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을 보고, 감사의 소감은 종친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부회장과 임원진들이 신생 종친회의 발전과 문중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충효 사상을 위하여 영천 시조 판서공(휘 당) 세일사에 버스 3대로 종원이 참배하는 등 최선을 다였으며, 24년도 대종회 지원금이 타도에 비하여 200만 원은 부족함으

로 지파 종원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남고, 전주·전북 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2025년에는 대종회로부터 특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종회의 설득이 요구됩니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대 재무가 2023년도와 2024년도 수입액 7,828,800원 지출액 5,765,700원 잔액 2,063,100원을 보고 하였다. 부의 안건 토의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 토요일로 2025년은 12월6일(토)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종회 주병 문화이사가 참석하여 보학강의를 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연말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전북전주지역 현조”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사인공 휘 수형 선조를 비롯한 15분의 현조 행록을 메일로 보내주어, 유인물로 대체하여 종인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였다.

대종회에 오늘 제1차 정기총회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실 것을 바라는 초청 공문을 보냈으나, 주영 회장께서 선약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전화로 축하를 하여 주었으며, 대종회 회장, 충의공종회 경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송덕재종회 상훈 회장, 충주종친회 원재 회장 등이 금일봉을 전해주었으며, 충의공종회 경래 회장, 문경공종회 경수 회장, 송덕재종회 상훈 회장, 충주청장년연합회 근재 회장, 전국청장년연합회 등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다.

한편 단상의 현수막은 대회장 초원갈비 노상용 대표가 협찬해 주었다. 종친회 회장의 폐회 선언을 끝으로 정기총회를 마치고, 종인들은 화합과 단결을 약속하고 지키기 위하여 사진 촬영 후, 영양이 풍부한 갈비탕과 반주로 즐겁게 웃음꽃을 피워가며, 점심식사를 하니 몸보신에 마음보신까지 하는 흥겨웁고 보람된 자리가 되었다. 후식까지 마친 종인들은 대종회에서 제작한 달력을 하나씩 나누어 들고, 각자의 보급자리로 돌아갔다.

— 전주전북종친회 총무 홍래記

광원군파 도정공종회 도화회 정기총회 개최

2025년 1월 19일(일) 11시, 광원군파 도정공종회 화수회 도화회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4길 13 광덕빌딩 5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은 2024년도 활동 보고 사항으로 1분기는 총회 개최, 2분기는 한탄강 탐방 및 야유회, 3분기 도정공 종회의 역사와 독립유공자 병철 지사의 독립운동사 강의, 4분기는 충주 중앙공원내 병철 지사의 독립운동 공훈이 새겨진 충혼탑에 광원군파종회 화수회와 연계하여 탐방 충혼례를 올리고, 지사의 장인이신 영일정씨 묘소를 참배하였는데 이날 행사에는 120명의 종원이 함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광원군파 도정공종회 도화회 정기총회

회비의 사용에 관한 보고에서 회비는 회원당 년 6만원으로 220만원을 각출하였으며 각종 행사에 종인들의 협조로 700여 만원의 찬조금이 모금되어 우리 도화회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5년도 연간 계획으로는 1분기 총회, 2분기에는 동작동 소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금래 선조 성묘 순례, 3분기에는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을 찾아, 병사공 휘 상욱(諱尙頊) 선조의 행록을 탐방, 4분기 병철 지사의 묘소가 실전되었으므로 탄생지에 단비를 세우고, 고유제를 모실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2024년도의 활동에 뿌듯함을 느끼고, 2025년도에도 계획한 바와 같이 잘 이루어져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인근 풍년식당에서 식사와 가벼운 음주로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 도정공종회 도화회 총무 택재記

광원군파 감사공종회 광일회 정기총회 개최



광일회 정기총회

광원군파 감사공종회 산하 광일회는 2025.1.18. (토) 서초구 방배동 소재 광원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광일회 윤재 회장 주관으로 2024년 사업

전반을 되짚어보는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옥재 전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광원군파종회 회장 석래, 성남시 광복회 용위 회장 등 23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식순에 의거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및 격려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안전토의, 오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년 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돈목과 소통의 내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판서공(諱唐), 둔촌(諱集)선조의 시제 참석과 양진재 선조의 시제 참석에 더 큰 관심과 열의를 보여달라는 뜻을 모았다.

또한 선조 묘역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 여러 광일회 회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목소리가 차고 넘쳤으며 그동안 종종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회원님들의 참석을 적극 유도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양한 애경사에 마음을 써주신 종인분들께 깊은 사의(謝儀)를 표하는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친 종인들은 인근 소소정 한식당으로 이동하여 불고기와 돌솥밥으로 오찬을 즐기며 종인간의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다. 이날 오랜만에 참석한 여러 종인들의 반가운 모습에 반주를 주고받으며 정겹게 오찬을 마쳤다.

- 광일회 총무 광재記

독립운동가 이병탁(李炳鐸) 지사(志士)



독립운동가 이병탁 선생

병탁 지사는 목사공(휘 지유) 19대손으로 1880년 3월 평안남도 순천군(順川郡) 북창면(北創面)에서 출생하여, 평안도 관찰부 주사로 봉직(奉職)하였으며 천도교(天道敎) 교인(敎人)이셨다. 1920년 음력 11월 18일 궁

이양(弓履陽)은 이병탁·강국두(康國斗) 등과 함께 평남 순천군 선소면(仙沼面) 남포리(藍浦里)에 소재한 장두현(張斗鉉)의 집에서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을 조직하고 이후 평남 성천군(成川郡)·개천군(介川郡), 순천군과 평북 영변군(寧邊郡) 등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50여 명을 모집하였다.

이 단체는 중국 관천현(寬甸縣)에 소재한 대한독립 광복군(大韓獨立光復軍) 사령관(司令官) 조

맹선(趙孟善)과 연결한 뒤,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여 상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한편, 무기를 구입하여 조선 내 관공리를 처단하고, 단원을 모집하여 독립군이 국내에 진주할 시 내외가 상응하여 조선 독립을 달성함을 목표로 삼았다. 이병탁 등 30여 명의 단원은 평남 성천군·개천군·순천군과 평북 영변군 등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순천(順川)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21년 8월 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감시와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 1920년대 후반에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으로 거처를 옮기고, 고향을 오가며 지내다가,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았다. 그러나 남, 북 정정이 불안하고 순탄치 않음을 감지하고, 1948년 2월 충북 보은군 마로면으로 이주하였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자 친인척이 대거 몰려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1953년 휴전이 되



독립운동 동지들과 함께

어 모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후, 충북 옥천군 청산면 더 외진 곳으로 이주하여 화전으로 생계를 이으며, 서당을 개설하고 주위 여러 마을의 청소년들을 모아 후학양성에 매진하시다, 1962년 3월 83세로 생을 마치셨다. 2014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고, 2024년 11월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이장하였다.

- 손자 이상구記

새해를 맞이하여 초고령 사회의 노인 구강 관리에 대하여

스마일 재단 이사장 이수구

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廣李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미 예측한 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는, 금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오신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 특히 구강건강을 위해 우리 치과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새해 벽두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제언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우리 치과계가 노력한 것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낸 하나는, 장기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보건 위생 항목이, 독자적인 평가 항목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전국에 4,500개가 넘는 요양원에, 20만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구강위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없으므로, 제대로 시설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스마일 재단이 돌봄 위원회를 만들어, 약 20개소의 요양원 어르신들을 검진해 본 결과 그분들의 구강위생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방치된 결손 치아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의치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2~3년 동안 의치를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냥 끼고 계

셔서, 의치에 곰팡이 균이 득실거리고 치태와 치석 제거가 안 되어, 불량한 위생 상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들도, 구강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16년부터 요양원에서 촉탁 치과의사를 둘 수 있도록 법은 제정되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시설 운영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건강 보험의 검진 수가로만 받을 수 있게 된 열악한 조건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끌 수도 없어서, 전국 요양원에 촉탁 치과의사로 단지 9명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스마일 재단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당국을 설득하고, 건보공단에서 운영하

는 서울 요양원과, 대한 노인회가 서울시에 위탁 경영하는 동대문 실버케어 센터, 치매 가족협회가 운영하는 청암 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노인들의 구강관리를 시작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을 설득한 결과, 생각보다는 빨리 장기 요양시설의 구강보건위생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에 독립적인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평가지표의 개정이 3년에 한 번씩 있으므로, 금년에 안 되었으면 3년 후에나 거론될 뻔했는데 그나마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시설 운영자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구강보건 관리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건강 보험 검진료의 낮은 수가로, 요양원에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구강 검진을 해줄 치과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노인들의 구강 노쇠는 영양 부족으로 전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골절을 비롯한 노인 건강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구강 주변의 근력 약화로 연하 작용이 약해지면, 불량한 구강내 세균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고 전신적으로는 치매나 심내막염 같은 치명적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설 당국자들에게 잘 이해 시켜, 여태껏 축탁의 중 맨 후 순위로 밀리던 치과 축탁의 선임에, 관심을 갖도록 협회에서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 치과의사 협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원들에게, 구강 보건관리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협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며, 우선 우리 회원들에게 교육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를 해야 될 것이며, 많은 회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서, 교육을 받고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보수교육 점수 부과라던가, 가능하다면 회비에서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서, 모처럼 마련한 기회를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이 설정된 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가 2.0 들어가 있는데, 이중 0.5점이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 0.5점은 개별 구강 관리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이고, 다음 1.0이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 당국자가 치과의사를 초빙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조치를 못했다는 경우가 많아지면, 자칫 국민들로 부터 치과계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여기에 대한 대비가 협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통합 돌봄 지원법에, 방문 구강 진료도 포함되어 있고, 바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금년 전국 요양원의 검진 사업은 실패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이미 치과의 방문 진료도 시행된 지가 30년도 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방문 진료도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통합 돌봄 지원법에 들어 있는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개정하

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재정적 해결 과제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는 방문 진료도 지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 문제도 쉽지 않을 과제이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추세로 보아서, 통합돌봄 지원법이 추구하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의료, 요양 등 돌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로 보아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 여겨지며, 특히 협회는 전문 대응팀을 조직하여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문 진료 시 수가문제, 준비해야 될 필수 장비문제는, 앞으로 치과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큰 문제로 생각이 들어, 치과계 전 직역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위생사협회, 치산협을 비롯한 치과계 전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수구 이사장은 이달영 독립지사의 차남으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 중구 무교동에 이치과 의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재직하며, 스마일 재단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제3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제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치과의료계를 이끌고 있다.

제29회 둔촌 청소년문학상 입상 작품

● 초등부 최우수상

둔촌 할아버지

김윤찬(성남초등학교 6학년)

둔촌 선생님께!

둔촌 할아버지는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 같습니다.

부패한 신돈을 피해
피난길 오르신
둔촌 할아버지의
두려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난의 피난길에도
늙으신 아버지 등에 업고
험한 산길을 가던

둔촌 할아버지 효심

마음에 달빛처럼
제 마음에 새길 겁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하고
바르고 정직한
학자이신 둔촌 할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닦아야 할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 초등부 대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셨던 이집 선생님

박세건(진건초등학교 5학년)

둔촌 이집 선생님은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으셨다. 그렇기에 원하는 것들을 흔들림 없이 이룰 수 있었다. 물질적인 욕심을 앞세웠더라면 아첨하는 말을 했겠지만 선생님을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바른 생각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셨다.

생각해 보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다.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 이웃을 위하는 사랑, 가족을 섬기고 위하는 것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가치가 많다. 이집 선생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투명하게 볼 줄 아시는 분이셨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칭송을 받으시는 것이다.

돈이나 금은보화에는 욕심이 없으셨지만,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언제나 욕심을 내셨다. 지금도 후손들이 선생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걸 보면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친척 누나가 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었다. 나는 수상자의 가족으로 초대받았다. 그래서 이집 선생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작은 책을 나누어 주셨는데 선생님의 업적과 대회 참가자

들의 글이 실려 있었다. 훌륭하신 분을 알게 된 것이 기뻛고, 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친절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잘 알려 주셔서 큰 공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추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후손들이 업적을 기리고 우러러 봐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늘나라에서도 기쁘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광주이씨의 중흥조로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묘역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후손들의 정성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도 이집 선생님을 본받아 마음이 굳건하고 맑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집 선생님의 삶이 평안하지만은 않았다. 고려 말 신돈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계셔야 했던 시간도 있었다.

남한산과 남한산성을 마주 보고 있는 곳, 오늘날 강동구와 하남 사이의 산이 바로 그곳이다. 그곳에 머무시면서도 선생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맑게 가꾸셨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되뇌면서 용기를 내셨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효심과 충절을 본받아 많은 사람이 인간다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으면 좋겠다. 요즘 뉴스를 보는 일이 겁이 난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죽이는 일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끔찍한 일이다. 아동학대 또한 끊이지 않는다. 오늘의 시간으로 이집 선생님께서 초대되

신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집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니 저절로 한숨이 새어 나왔다.

나는 종종 선생님의 마음이 되어서 나를 바라볼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항상 단정하게 몸과 마음을 가꿀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친구를 사랑할 것이다. 담임 선생님을 섬기는 마음도 선생님의 눈높이로 바라본다면 더욱 공경하게 되리라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효심도 선생님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조금씩 이집 선생님을 닮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좋은 공모전을 통해서 선생님의 업적과 생애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많은 친구가 대회에 참

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닳고 싶은 점을 기록해 조금씩 닳아간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낸 선생님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침반이 되어준다. 비록 선생님의 육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선생님이 남기신 올바른 정신과 삶의 향기는 아직도 남아 후손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을 깨우쳐 준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향기가 가득한 삶이 아닐까. 씩씩하고 당찬 걸음으로 세상에 발걸음을 남기신 선생님의 삶은 그 어떤 시간보다 아름답고 향기롭다.

● 중등부 최우수상

김정우(김포 한가람중학교 2학년)

1. 둔촌

둔촌의 시린 풍경 저 끝
감빛 하늘자락 하나 잘라
대나무 이어놓은 이집의 발자욱

흙살에 내린 인연
알알이 덕으로 품어
새벽의 기다린 고랑에
경서로 수놓아진 사색의 행렬

땀자 같은
동그란 정다움으로
햇싸라기 옆에 빗겨 놓고

주홍빛 노을 아래
은둔 지조 아랑곳서며
선비의 꿈을 쫓는
둔촌향으로 누워있는 산빛 여로

2. 신돈을 벗어나

지나가는 바람이 간지럽습니다.
햇살을 모아 담아 고개 숙인 벼들도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도

땀구는 작은 돌멩이도 간지럽습니다.

벼가 고개 숙이고
코스모스가 흔들거리고
그 길을 걷는 이집도 간지럽습니다.

높이 떠 있는
고려도 살짝 지나쳐 봅니다.

그러곤
가만히 꿈을 가지고
다시금 둔촌 하늘로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갑니다.

● 중등부 대상

김소울(지도중학교 1학년)

일생 1

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지
남들의 부러운 시선
하지만 한문과 시가 나를 끌어당기는 기분은 뭘까
나에게 자유가 필요한 기분은 뭘까
가슴 한편이 꺼림칙하다.

신돈,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신돈에 대한 두려움

개경에 돌아와 판전교시사로 임명이 될 수 있었지
후회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두려움
답답하고 힘든 내일의 두려움

여주 천녕현 아름다운 땅
시가 절로 나오는구나.
삶이 두렵지 않은 행복한 순간
내 시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순간

일생 2

나는 성남시에 묻혔지
평온함의 시간

자유의 시간

회화나무가 날 반겨주고
사당 추모제의 사람들이 놀러 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몇 보 더 걸어 조선 중기의 무신인
이윤덕 장군이 있는 곳으로 가 함께 놀고

마음이 허전할 때는 사당인 추모제 왼쪽
나의 집을 복원해 준 후손들에게 감사하며
한 발짝 들어간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

● 고등부 최우수상

실천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다짐

이채영(위례한빛고등학교 3학년)

2024년 4월 27일 중간고사가 끝난 주 토요일, 광주 이씨 후손을 자랑하는 문학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둔촌대로 320번길'로 갔다. 우뚝한 신도비가 우리를 반겼다.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묘역>입구다. 잘 포장된 길을 걸어 올라가니 아담한 기와집과 둔화문이라고 한문으로 쓰인 현판이 앞에 보였다. 왼쪽 대문으로 들어서니 몇 분의 할머니들이 앉아서 채소를 다듬고 계셨다. 글을 쓰는 학생이라 하니 할머니는 20

대 손부인데, 21대손은 이광재라는 분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집안 행사 때마다 모든 일을 나서서 한다고 말씀하셨다.

옆으로 건너가니 추모재라 부르는 사당이 있었다. 매년 6월 초 생신제를 지낸다. 나와서 옆의 묘역을 향해 올라갔다. 세 기의 묘소 중 가장 위가 둔촌의 묘소다. 안내문에 부인 영주 황씨와의 합장묘라 소개되어 있다. 가운데는 손자 이장손의 묘소로 31세로 요절했다고 한다. 밑에는 증손자 이극규의 묘소다. 둔촌의 후손은 이때가 전성기였다고 소개되어 있다. 사촌지간 극규, 극배, 극갑, 극중, 극돈, 극균, 극기, 극견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팔극조정이라 불렸다. 참으로 대단한 집안이라 생각했다. 묘소를 관람하고 근처 소나무 밑으로 가 친구와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누워있었더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채영아! 너 오기를 기다렸다.”
“선비님은 뉘시기에 저를 기다리셨나요?”
“나는 여기 주인으로 국어교사를 꿈꾸는 너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럼 둔촌 선생님이신가요?”
“옳지, 금방 눈치를 챘구나. 나와 갈 곳이 있다.”
선생님을 따라 간 곳은 남한산성 중간에 있는 절 국청사였다.
“이 몰랐 좀 보아라.”
“맛이 참 좋네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렇고말고, 이 샘물이 바로 내가 아버지 병을 고친 국청사 그 샘물이다. 산신령이 말한 대로 이 샘물 위 약초를 캐서 부친께 달여 드려서 병이 나으셨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만병통치 국청사 샘물이라 부른 거야.”

“선생님께서 효의 모범을 보인 게 이때부터였나요?”

“그런 셈인가! 그렇지만 그때는 누구나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지. 중국인들이 고려에 와서 놀랄 정도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군자의 나라라 말했지.”

선생님은 이제 네가 잘 아는 곳으로 가지고 하셨다. 서울 둔촌역 부근 바위였다. 선생님이 신돈의 미움을 받아 부친과 숨어있던 골, 곧 ‘둔굴’이라는 호가 붙게 된 큰 바위였다.

“너도 이 이야기는 잘 알지?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출산하다가 과다출혈로 죽자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지.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온 게 요승 신돈이야. 신돈의 하는 짓을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 뭐야. 그래서 신나게 욕을 했지. 임금은 죄가 없으니 신돈만 비난할 수밖에. 그 소문을 들은 신돈은 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지. 어쩔 수 없이 부친을 모시고 이 굴에 숨었어. 그때 이곳은 외진 곳이라 사람이 왕래하지 않아 숨기에 좋았어.”

“양식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행히 아들도 나를 닮아 효자였지. 밤마다 밥과 반찬을 가지고 와서 부친과 굶는 일은 없었던단다. 얼마가 지났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야. 이곳이 소문났다고. 밤새 고민을 했지. 결론은 국자감 지음 최원도였어. 그 친구는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 래 밤낮으로 경상도 영천을 향해 부친과 달렸어. 이전 네가 많이 조사해서 잘 아는 내용이지.”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요즘같이 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레를 탈 수도 없고 어떻게 그곳까지 가셨나요?”

“이제야 밝히지만 그것도 아들의 도움이 컸다. 아들이 할아버지를 업었거든. 나는 옆에서 같이 걷고 뛰었지.”

이제 다음으로 가지고 하셨다. 당연히 선생님의 부친 묘소로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여주였다.

“선생님, 이곳은 제가 조사한 곳이 아닌데요.”

“알아, 그러나 너는 국어교사를 꿈꾸고 있으니 이곳을 꼭 알았으면 한다. 이곳은 둘째 손자 인손의 무덤이야. 큰 손자 장손은 아들 하나만 낳고 요절해서 차남 인손이 고생을 했지. 인손이 죽었을 때 명당을 잡아 장례를 치렀어. 그런데 세종대왕릉 터가 좋지 않다고 이장을 하면서 인손의 무덤을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야. 물론 나는 훨씬 전에 죽었지만,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지. 이때 나는 빙그레 웃었던단다. 왜냐하면 인손을 위해 옮기기로 한 묘소가 지금의 묘소보다 명당자리였거든. 사람들은 왕이 인손 묘소를 빼앗았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이곳이 더 명당이었어.”

“그렇군요. 그래서 후손이 번창하게 된 거군요.”

“역시 똑똑하구나. 맞아, 후손이 번창해 광주 이씨라는 명문가가 된 거지. 이제 네가 많이 조사한 곳으로 가자.”

문학 선생님이 자랑하던 경상북도 영천에 도착하였

다. 광릉이라 부르는 묘소 셋. 맨 위는 지음 최원도 모친 묘, 밑으로 둔촌 이집의 부친 이당의 묘소, 발끝으로 제비 연아의 묘소다. 선생님은 차례로 절을 하셨다. 그런데 제비 묘소에 절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

“선생님, 왜 친구 어머니 묘소와 부친 묘소에서는 조용히 절만 하시고 제비 묘소에서는 이렇게 통곡을 하시나요?”

“제비는 나와 부친을 지켜주기 위해 자진한 거잖아. 두 분은 친구를 누렸지만 제비는 나 때문에 요절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영원히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거지. 무엇보다, 요즈음 제비와 같은 의리가 사라져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의리가 자취를 감출 줄은 몰랐단다.”

“그렇군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교육자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잘 가르쳐야한다. 아무쪼록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는 교사가 되거라. 부탁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잠에서 깨 보니 꿈이었다. 너무나 생생해 방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둔촌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조사한 내용을,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서 여행을 통해 알려주셨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고등부 대상

사회 선생님에게 안 둔촌 이집 선생님

김연재(보라고등학교 1학년)

1차 지필평가가 끝난 다음날 사회시간이 되자, 사회부장인 나는 수업 준비물을 챙기려고 교무실에 갔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나눠주시는 학습지와 달리 책 한 권을 내미셨다. 이 책이 어떻게 수업에 쓰일지 의문이 들었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로 발걸음을 향했다.

종이 치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교탁에 올려놓은 책을 드시고는, 오늘 수업은 유흥준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시작할 것이라고 하셨다. 소설가들 꿈꾸는 16살의 문학소녀로 기록해두면 글쓰기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가방에서 펜과 수첩을 꺼냈다. 책에는 유명한 동네가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춘천시 서면의 박사마을을 말씀하셨다. 1968년 송병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0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1999년 서면이 박사마을로 전국에 알려지자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박사마을 선양탑〉을 건립하였다.

경상북도 영양군 주실마을을 이어서 이야기하셨다. 한양 조씨 집성촌으로 조선시대 문집이나 유고를 남긴 학자가 무려 63명이며, 현대에도 조씨 중 박사, 대학교수, 시인, 군 장성, 언론인 등 유명 인사가 50명이나 나왔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동탁)과 국문학자 조동일, 역사학자 조동걸, 한국개발연구원장 조동철이 대표적인 인사다. 그곳에는 지훈문학관이 있고 조지훈문화제도 열린다. 현재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조

지훈 시인의 장남으로 아버지와 모습이 꼭 닮았다.

말씀을 마친 선생님은 혹시 여러분 중에 경주 최씨가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다. 최수인이 손을 들었다. 대한민국 명문가 중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라고 말씀하시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뿌듯해하는 수인이의 얼굴을 보니 팬스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400년 전쯤 경주 최씨 최진립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존경받는 집안으로 유명하다. 이 집안의 가르침을 〈육훈〉이라 부른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 석 이상 지니지 말라.

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흥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를 후손들이 잘 실천해서 일제강점기에도 경주 부근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말을 마치고 선생님은 우리를 쪽 둘러보시더니 웃시면서 얘기를 이어가셨다. “나는 무슨 집안 출신인지 아냐?” 내가 위 집안에 전혀 뒤지지 않는 둔촌 이집 선생의 광주 이씨 20대손이라고 하셨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수첩에 필기한 내용을 보다가 문득 선생님의 집안인 둔촌 이집 선생님은 누구이실까 라는 궁금증에 자료 조사를 했다.

조선이 위태위태하면서도 500년을 넘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건 선비들의 상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둔촌이 신돈의 비행을 비난한 것과 같이 선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돈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였다면 고려는 멸망이라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나라가 망한 이후만 생각했고 고려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21세기를 빛낼 사상이

한국에 있다면 그것은 효일 것이다.” 라고 한국의 효를 극찬했는데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분이 둔촌이다.

늙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국청사 우물 위 약초를 뜯어서 부친에게 달여드려 낮게 한 전설을 낳았다. 국청사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절로 국청사 샘물은 지금도 유명하다.

신돈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혼자 도망치면 부친에게까지 피해가 될까 봐 부친을 업고 경상북도 영천까지 도망친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 그때 길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먼 영천까지 걷고 뛰었을까. 둔촌의 효성에 감동한 하늘의 도움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무엇일까.

중학생 때 한문 시간에 배운 고사성어 ‘백아절현’, 백아는 자신이 타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마음속까지 알았던 친구 종자기가 죽자, 들어줄 친구가 없어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는 고사니, 둔촌과 천곡의 우정이 바로 이와 같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늙은 부친을 업고 온 친구를 버려둘 수 없어 벽장에 숨겨서 목숨을 구해준 천곡 최원도의 배려심, 이때, 분노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웃을 갈아입고 빨래는 어떻게 하였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제비의 절개, 아마 제비는 집주인 백원도를 부모처럼 여겨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제비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온다.

이제야 왜 사회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둔촌 이집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던 건지 이해가 갔다.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공동체의 이익, 타인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자신만을 아는 현대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둔촌 이집 선생님의 모습을 반이라도 닮아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19회 문촌중국백일장 입상 작품

● 소학조 장원

가을 여행

강동훈(심양시 소가툰구조선족중심소학교)

할머니는 늘 가을이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해 지신다고 한다. 점점 차가워지는 가을바람과 높아만

가는 하늘이 마치 몸도 마음도 차가워지고 멀어져 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현황과 같아 보인다고 한다. 그러곤 늦가을의 노을을 보시며 한숨을 쉬시곤 한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할머니 옆에 앉아 가을의 아름다움을 할머니께 보여주곤 한다.

저 과수원에 빨갛게 달린 사과가 행복하게 뛰어놀며 환하게 웃는 손주 불살 같지 않나며 또 그 가을 여물어 고개 숙인 벼이삭이 항상 겸손하고 듬직하게 행

동하는 아들성격 같지 않나며 저 먼산에 뒤덮인 단풍잎들이 마치 꾸미기 좋아하고 예쁜 길 좋아하는 며느리의 모습 같지 않나며.....

엄마의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말쑹한다. 가을의 바람이 행복을 불어다 주는 바람이며 저 높은 하늘이 더 반짝이는 미래를 알려주는 하늘이라고 가을은 마음이 따뜻한 계절이라고.

가을은 진짜 좋은 여행이다.

● 초중조 장원

10년 후의 나에게

박가빈(심양시 조선족제6중학교)

안녕, 나는 10년 전의 나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마음속 확연한 꿈이 있는 게 다행이고 많이 든든하다고 생각해. 내 꿈은 판사야. 10년 후의 지금, 24살인 난 과연 멋지고 단정한 슈트를 입고 재판장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판사의 직업을 꿈꿨는지 기억나? 내 인

생의 터닝포인트인 중국영화 《제리장》이 꿈도 없이 방황하던 나에게 동아줄 같은 존재였어. 이 영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겪어 무서운 마음에 정당방위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들을 도와주는 커녕 가해자로 몰았어. 그들은 한치 없는 앞날을 두었는데도 끊임없는 도전과 희생을 끝으로 드디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걸 성공했어. 그리고 몇 년간 이들과 비슷한 사건들도 모두 뒤집혔지.

사람들은 “겨우 영화 속의 장면일 뿐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난 이런 일들이 현실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 현생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꼭 어른이 되어서 이 불공평한 사회를,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계를 바꾸는 큰 영향력이 되고 싶어.

당연히 꿈을 향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거라고 믿어. 하지만 난 절대 지름길이 아니라 흠뻑물 속으로 빠져보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고 땀을 많이 흘려볼 거야. 그럴 때마다 꼭 10년 전 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떠올려봐. 10년 후, 환경이 바뀌고, 곁에 있던 사람이 바뀌어도 나만큼은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네가 듬직한 어른이 되어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힘내!

- 10년 전의 내가

● 고중조 장원

10년 후의 나에게

장형심(심양시 조선족제1중학교)

10년 후의 나, 안녕? 잘지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잘 지냈으면 해. 그래도 막상 직장에 들어갔으니 아무래도 많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내가 조언을 해줄게. 너보다 10살 어린 나지만, 한번 들어봐.

우선은 용기. 알지? 너 진짜 용기가 필요한거. 생각해 보면, 나는 단 한번도 내 인생의 공격수였던 적이 없었던거 같아. 언제나 적당히 수비하고 적시에 물러섰어. 공이 오면 받아 칠 용기도, 그렇다고 피할 감량도 없는, 어중이 떠중이 수비수. 그래서 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실수해도 겁먹지 말고, 어려워도 도망가지마. 마음속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직진했으면 좋겠어. 이젠, 늘 주저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그 다음엔 건지. 떨어지는 빗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의 시작이듯, 모든 이야기에 끝이 있지만 인생 속의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러니 그 어떤 좌절에 부딪히더라도 꼭 버티봐. 하루 버티고, 이를 버티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버티다 보면 다 괜찮아 질거야. 비밀 하나 알려줄까? 땅속은 밖이랑 계절이 달라서 10월에 봄이 시작되는데. 밖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 됐는데, 땅속은 싹이 움트는 봄이 시작하는거야. 힘들 때 너도 그렇게 생각해봐. 아, 이제 내 안에 봄이 시작되려나 보다. 이젠, 많은 것을 포기했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마지막엔 아낌.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헤어짐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나는 영원을 바라기 보다 순간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어. 내일이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지금, 순간을 미루지 않고, 순간을 아끼면서 사는 것. 이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라 믿어. 지천에 깔려진 행복을 내팽개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을 아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니,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면서 살아가. 이젠, 소중한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딱 이 세 가지. 할 수 있지? 난 너를 믿어. 너도 너를 믿어봐. 하기 싫어도 다 해냈고, 어려웠어도 잘 마쳤고, 먼 길인데도 많이 왔어. 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믿어도 돼. 이젠, 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노력하는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 교원조 장원

선물

강미령(심양시 조선족제1중학교)

“이것 봐, 친한 언니인데 이번 생일에 명품백 받았나 봐. 완전 예쁘지?” 핸드폰을 건네는 친구의 눈길과 말투에서 부러움이 묻어났다.

“오~ 정말 예쁘네! 부럽구나?” 내가 물었다.

“당연하지, 이런 고급 선물을 받고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 너는 안 부러워? 너는 이번 생일에 뭐 받고 싶은데?” 친구가 토끼처럼 동그란 눈을 크게 뜨며 궁금해했다.

“나도 좀 부럽긴 한데, 생일 선물이라... 글썄, 딱히

갖고 싶은 게 떠오르지가 않네.”

“잘 생각해보고 알려줘. 내가 언니 남편처럼 명품백은 못 사줘도 네가 원하는거 선물해줄게.”

커피숍 창밖에 붉은 노을이 예쁘게 물든 그림 같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릴 때는 생일에 부모님과 놀이동산 가는 것이 소원이었고, 중학생 때는 숙제 걱정 없이 친구들이랑 실컷 노는 게 소원이었고, 대학생 때는 예쁜 옷 사 입고 여행 다니는 것이 생일 소원이었으며, 갓 취직했을 때는 꼭 자고 좋은 영화 한편 감상하면서 힐링하는 게 생일 소원이었다.

사회생활 한 지 벌써 7년이 된 지금, 나는 생일 소원이 없다. 생일 며칠 전부터 설레고 기대했던 왕년과는 달리 올해는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왜 이럴까? 무소유의 진리라도 터득한 걸까? 수상한 의문을 품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무척 좋았다. 집에 도착해서 마음속 의문도 잊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서랍 정리를 하던 중 전에 찾아도 보이지 않던 일기장이 나왔다. 반가움도 잠시, 이 일기장 속에 새벽 감성에 젖어 오글거리는 말들을 적었으면 어쩌나, 눈을 반만 뜬 채 펼쳐보았다. 과연 예상적 중이었다. 깔깔 웃으며 ‘이불킥’ 하게 만드는 유치한 글들을 구경하던 중 가장 눈에 띄는 한편이 있었다.

“서른 살의 나는 어떤 모습 일까? 운동 견지하면서 날씬한 몸매 잘 유지하고 있겠지? 요리도 배워서 건강한 매끼 식사를 하고 있으려나? 독서도 견지해야 할 텐데, 통장에 적은 돈 얼마 되려나? 어른인데 예쁜 옷을 사는 데 다 쓰지는 않겠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버릇은 고쳤겠지? 지금의 나보다는 부지런해졌겠지? 내가 봐도 멋진 그런 어른이 되어있었으면 좋겠다.”

웃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밥소사, 부끄러웠다. 곧 서른이 될 나는 어린 나의 기대와는 달리, 운동을 그만둔 지 꽤 돼서 살이 좀 췌고, 배달음식 시키기가 일쑤이며, 책에는 먼지가 쌓여있다. 아직도 예쁜 옷을 사는 걸 좋아하고 할 일을 미루며...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하고 멋진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멋진 미래를 상상했을 과거의 내가 자꾸 떠올라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무소유의 진리를 터득한 게 아니라 마음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성장을 포기하고 멈춘 이는 인생의 즐거움

도 같이 포기한 셈이다. 그래서 설레임도 기대감도 없이 그저 잔잔한 호수같이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일기장은 마치 호수에 던진 ‘돌’ 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일어나서 불을 켜다. 일기장에 끄적였다. 서른까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일 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짧은 기간이 21일이라고 한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인 서른살을 조금 더 멋지게 살아내기로 했다. 당장 내일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고 장을 봐서 건강하고 맛있

는 식사를 할 것이며... 흥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친구에게 문자를 했다.

“나 선물 뭘 원하는지 알았어. 업그레이드된 나를 선물 받고 싶어. 더 좋은 어른이 되려고.”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 선물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줄 수가 없네. 잘 해봐! 기대할게, 더 멋진 네 모습.”

나도 기대가 된다. 서른 살의 내 모습이.

● 교원조 금상

선물

박동철(심양시 조선족제1중학교)

천장의 잎이 걸려있는
천년 묵은 나무아래
하얀 어머니는
천년 세월에
천개의 사랑 수놓이 한다.

천송이 흰구름
천년홍노을에 빠져들고
무지개의 번쩍임에
눈을 감았다 뜨니
나무는 단풍들고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엔
바늘 한 대 놓여있다.

세상의 침묵 속에서
먼지처럼 락엽이 쌓이고

하얗게 질린 하늘이
폭설로 풍경 씻는다.

아차!
바늘구멍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나의 마음에
천 개의 선물 달고 있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5년 1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창수	10,000	서울 성북	이덕환	10,000	충남 부여	이주원	10,000	대구 달성
이춘성	10,000	대구 남구	이용휘	10,000	서울 강동	이종찬	10,000	대구 수성
이수평	20,000	대구 북구	이종민	50,000	경기 안양	이용건	20,000	부산 남구
이용섭	10,000	서울 강동	이창근	10,000	광주 서구	이태수	10,000	경기 수원
이용길	10,000	경기 수원	이헌진	10,000	경북 칠곡	이승수	10,000	대구 중구
이용단	10,000	부산 남구	이우빈	10,000	전북 익산	이규환	30,000	강원 양양
이용구	10,000	부산 남구	이종일	10,000	경기 화성	이종일	50,000	경기 하남
이용우	10,000	부산 남구	이성수	10,000	서울 노원	이기수	30,000	경기 김포
이길환	10,000	경기 인천	이완수	10,000	서울 강동	이종덕	10,000	충북 단양
이승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세	20,000	서울 금천	이주홍	10,000	경기 안산
이삼용	10,000	경기 인천	이한주	20,000	충북 진천	이대희	10,000	경기 안양
이근형	10,000	경기 하남	이종성	10,000	경북 포항			
이창식	10,000	서울 서대문	이창선	10,000	전남 여수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중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중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5年 2月 1日

<제407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이 주 영
編輯人 : 이 용 두
主 幹 : 이 주 병
發行處 : 광주이씨대중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